전남도, 호남 미래 이끌 청년 리더 1200명 키운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 출범…각 분야 권위자 초청 강연
2026년까지 매년 3기 운영…올해 '전라도 혼과 정신' 주제

김영록 전남지사와 청년 대표 등 내빈들이 11일 오후 고흥군 도양읍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 연수원에서 열린 제1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출범식에서 손 펼침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가 호남을 이끌 청년 리더 1200명을 오는 2026년까지 양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라도 혼과 정신', '희생과 봉사정신', '평화와 자유', '충과 의'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최고 권위자들을 초청해 지역 청년들과 소통·대화하게 하고 역사적인 현장들을 찾아 호남인의 자긍심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지역에 정착하거나 타 지역, 세계 각국에 진출해 지역 성장·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전남이 최초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고흥 마리안느와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출범시켰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전남도 민선 8기 김영록 지사의 대표 공약사업이다. 전남을 넘어 세계로 도약을 준비하며 대한민국 미래사회를 선도할 청년을 발굴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리더 양성사업이다.

지역 청년을 모집해 각 분야 최고 권위자를 초청해 강연하고, 호남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2026년까지 매년 3기를 운영, 기수당 100명씩 총 1200명의 청년 리더를 육성한다. 첫 해인 올해는 '전라도 혼과 정신'을 주제로 운영된다.

이날 출범식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공영민 고흥군수, 박선준 도의원,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자문단 위촉 수여, 비전 영상과 선포·다짐, 지사와 청년 간 소통간담회,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출범식 후 김 지사는 제1기 청년 아카데미 교육생과 소통간담회를 통해 ▲아카데미의 운영 방향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거주비 지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청년층 지원시책을 소개했다. 또 전남 청년의 미래 준비와 이를 뒷받침할 도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박재우 청년 공동대표는 "호남 청년 아카데미에서 리더십, 팀워크, 의사소통 등 고품질 교육을 통해 뛰어난 역량과 창조력을 가진 청년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호남 청년 아카데미의 출범을 축하하며, 호남의 청년들이 불의에 맞선 의로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세계로 도약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전남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이어 제1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개강, 김경일 아주대 교수가 첫 강사로 나서 '도전의 심리학' 특강을 했다. 1기 아카데미는 지난 40여 년간 한센인을 돌봤던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테마로 오는 4월 22일까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1회 4시간) 교육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2기는 '평화와 자유'를 테마로 5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3기는 '충과 의'를 테마로 9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장성 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5년까지 순천과 무안에 거점별로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해 청년의 꿈 실현을 돕고, 특히 전남지역 청년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수용할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창업 준비부터 도약까지 단계별 지원

광주시,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2026년까지 346억 투입

광주시가 예비·초기 창업자를 돕기 위해 창업 준비부터 실행, 성장, 도약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주관기관으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선정하고, 창업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창업패키지는 ▲창업 준비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 패키지 등 성장단계별 3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운영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이며, 국비 34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예비창업패키지 19억8000만원, 초기창업 패키지 25억원, 창업도약 패키지 4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며, 매년 예비창업자 32명 내외를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교육, 최소기능제품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이후 업력 3년 이내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매년 30개사 내외를 선정해 사업화 자금과 다양한 실증, 판로 개척, 초기 투자유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이후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인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

도약기 창업기업 30개사를 선발해 사업화 자금과 후속투자 유치 및 글로벌 시장진출 등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윤미라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이번 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창업 준비부터 도약까지 창업 성장 단계마다 촘촘한 지원으로 창업성공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출생가정에 상생카드 추가 할인

올해 출생신고…10% 혜택

광주시는 "올해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광주상생카드 사용액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광주에서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단태아 출생시 부모 중 1명, 다태아를 낳은 부모는 2명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할인율은 기존 7%에 3%포인트를 더한 10%로 연말까지 적용된다. 명절 특별 할인(10%)과 1인당 충전 한도(50만 원)는 일반 사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규 신청자는 첫 달의 경우 신청일의 다음 달 10일부터,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기존 출생신고 가정은 오는 15일부터, 신규 출생신고 가정은 출생신고 시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해 출생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광주시 및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작성한 뒤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상생카드 할인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별도 안내 없이 종료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 청년 일자리 사업' 1900여명 지원

2년간 자격증 취득·직무교육비…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등

전남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신규 7개를 포함해 21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1900여 명을 지원한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 1인당 연간 2400만 원 수준의 인건비, 청년에겐 자격증 취득 등 직무교육비 등을 2년간 지원한다. 또 3년차 정규직 전환 시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청년에게 직접 지원한다.

창업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와 7년 이내의 창업자에게는 창업 준비, 운영비, 공간 임차료 등에 2년간 3000만원, 3년 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연 2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청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직무 경력 쌓기를 통한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1년 이내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도 함께 지원한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에서 신규로 선정된 7개 사업을 2월 말까지 추진하기 위해 200개의 참여 기업과 350명의 청년 근로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 근로자에겐 3월부터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일하도록 인건비, 직무역량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143명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 사업 50명 ▲지역 특화산업 맞춤 청년 일자리 사업 50명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그린뉴딜 일자리 사업 20명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유현호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